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

최 금 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길은 그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뒷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뗄수없이 련결되어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의 계급적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위업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당하고있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5천년민족사에서 겪게 되는 곡절이고 비운이 아닐수 없다.

오늘 70년간 갈라져 살아온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다.

일시적인 분렬이 낳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사상과 제도는 강요한다고 하여 받아들이는것이 아니며 강압적방법으로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없앨수 없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뜻과 힘을 합쳐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반세기이상 존재하고 굳어진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은 현실적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된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충돌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것이며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기때문에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피뢰들은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제도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버리지 않고있다.

남조선피뢰들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고있으며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인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해마다 그칠새없이 벌리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올뿐 아니라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고 우리 민족전체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어 멸살시키는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오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제도통일》로 해결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민족과 계급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계급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사회적처지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계급의 발생과 함께 사회에는 여러 계급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민족은 피줄, 언어, 지역, 문화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이기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민족을 떠나서 민족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계급은 민족의 한 구성부분이다. 사회적인간은 계급의 한 성원이기 전에 민족의 한 성원이며 민족을 떠난 계급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들이 자기 계급을 어떻게 대하며 계급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계급이 민족의 구성부분인것으로 하여 계급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련관되게 된다.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계급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어야 계급의 운명도 옳바로 개척될 수 있다.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민족의 구성부분인 계급도 남의 노예로 된다.

결국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계급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나갈 수 없다.

민족의 운명속에 계급의 운명이 있는 것으로 하여 계급보다 민족을 더 중시하고 우위에 놓아야 하며 계급의 이익보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더 내세우고 계급의 이익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할 요구가 흘러나온다.

어떤 민족이든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

계급이 민족의 한 구성부분이고 계급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어떤 계급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 계급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지금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부세력들은 북과 남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정세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통략물로 될 수 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녀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조국통일에 대하여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전체 조선민족은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하루속히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두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